추상적 영상의 인식화

최초명로 본 영화 100년 〈3〉 구조주의

글 싣는 순서
1) 사실주의
2) 표현주의
3) 구조주의
4) 마르크스주의
5) 수정주의
6) 전위영화

장 석 용
(영화평론가)

현대 실험영화 형식의 하나인 구조주의 영화는 전자 영상의 특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실험영화의 전통이 극히 미미한 한국에서는 구조주의에 입각해서 점근할만한 텍스트로서의 영화는 찾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억지로 한국의 실험성향의 영화를 구조주의 틀에 대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므로 복미나 서구의 예를 들어 구조주의를 이해해 본다.

아방가르드 영화의 미학적 이념을 포괄적으로 구획지어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터 울렌이 제시한 범례를 따르는 것이 좋은 관점이 될 것 같다. 그는 서구 아방가르드 영화를 문화적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전위주의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고 하면서 그들 두 전위주의는 미학적 가설들이나 제도론적 토대, 재정 후원회의 유형, 비평적 배경, 역사적·문화적 기원에 있어 구별된다고 하였다. 전위주의 전통의 하나는 에덤스 시트니가 명명한,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물론·모더니즘과 결합한 구조판독법 영화인 '구조주의적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고다르, 슈트라우프, 휘리트, 하노옹, 얀조같은 감독들로 대표되는 유럽 아방가르드 영화이다.

긴 방을 가로 지르는 느린 포워드 줌은 시간을 재정의 한다. 미이클 스노우 감독의 '파장'.

유물론·모더니즘과 결합한 구조판독법
인간의 지각구조 탐구 및 사회비판

북미연합 전통의 아방가르드 영화인 '구조주의적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고다르, 슈트라우프, 휘리트, 하노옹, 얀조같은 감독들로 대표되는 유럽 아방가르드 영화이다.

북미연합 전통의 아방가르드 영화가 영화의 내러티브 차원을 배제한 채 영화의 시각적 형식이나 인간의 지각구조의 탐구에 몰두한 영화였다면, 유럽 아방가르드 영화는 사회 비판적인 정치영화로서 이야기와 구술 언어를 중요시 하면서 영화의 표현기법을 혁신시키고자 했다.

그들 영화의 이념적 방향은 결국 영화표현과 의미 사이의 새로운 관계 유형을 창조하고 모색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귀착되고 있다.

미학적 이념의 차원에서 북미연합 전통의 아방가르드 영화가 모더니즘의 이념과 연관되고 유럽 아방가르드 영화는 브레히트 이념과 연관되어 있다.

구조주의 영화는 이미지가 지각에 의해 현상되는 과정을 다루는데 이러한 과정과 관련하여 영화 매체의 물질성을 다루는 유물론적 영화와 결합되어 구조적 유물론적 영화로 불린다.

구조주의 영화는 시트니가 1960년대 중반에 발표된 일련의 실험영화를 지칭함으로써 일반화된 장르로서 소재 자체가 관념인 영화, 또는 미리 예정된 단순한 형태를 우선적인 특징으로 하는 영화를 가리킨다.

캐나다의 마이클 스노우의 1967년작 '파장'은 구조주의 영화의 대표작으로서 정지상태의 카메라로 45분 동안 줌을 이용한 연속화면인데, 카메라 앞에 일련의 유리창을 진열시킨 뒤 그 유리창 사이의 벽에 생기는 무늬의 파동을 촬영하면서 중간 중간에 짧은 동작을 삽입시켰으며, 전기 사인파를 주제율향으로 사용하면서 중간 중간에 약간의 대사, 음악, 잡음 등을 삽입하여 관객의 지각적 반응을 꾀하고 있다.

이 영화는 24m 높이의 한쪽 끝에서 촬영을 시작하여, 거의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어떤 창문들과 창살들 뒤에 놓인 거리를 향해 다가가다, 죽음을 포함한 4가지의 사면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만 가끔 정지하며, 결국 벽에 붙은 하나의 사진, 즉 과장의 클로즈업 쇼트로 끝나는 포워드 줌 쇼트 하나로만 되어있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또한 형이상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

카메라의 운동이 인식, 지각의 한계, 인간 인내력의 한계의 상징적 모델로 해석되었다. '대부분의 영화는 전통적인 극장 조건을 받아들인다. 관객은 여기 있고 스크린은 저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스노우는 지적한다. 특히 죽음과 같은 영화 속의 인간사와 카메라의 막을 수 없는 전진운동 사이에는 변증법적 긴장이 있다. 스노우는 좋은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우주적 연속성을 강조한다. 즉 줌은 인간 없이도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냉혹한 운명의 얼굴 앞에 놓인 인간의 무기력함에 대한 은유이자 인 주제로서 빈 방, 복도, 풍경들을 선호한다. 그것들은 변증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덧붙 개념적인 가설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취한다.

회화의 극소주의와 개념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구조주의 감독들은 영화의 형상을 존재 이유의 원리로 강조한다. 그들은 또한 시스템 이론과 게임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구조주의는 관객의 참여를 강조하며 선택된 주제는 이미 결정된, 때로는 기계화된 개념에 의해 굴절된다. 하나의 영화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영상의 내용, 구조적 원리로 인식의 약호들은 완전히 자체 정의되어진다.

서평

"김대중이 죽어서는 안된다"

강준만 저, "김대중 죽이기"

이 글에 앞서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앞에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며 어리석은 몇가지 이견을 드러내어 역작에 흠을 내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섬을 솔직히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학의 무지함을 비웃지 않는다면 필자의 '김대중 죽이기'를 정독한 솔직한 느낌을 떨자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책의 제목에 대해 할 말이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국의 정치와 언론은 오랫동안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서 있어왔다고 강교수는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김대중은 죽었는가?", 그렇게 미치도록 김대중을 죽이고 싶어했던 '조선일보'는 죽은 김대중을 확인사살까지 해가며 죽이려고 했다.

어법상의 문제로만 따진다면 김대중은 아직 죽지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도달한다.

강교수는 그의 정계복귀문제를 그의 죽음과 연관시킨다. "그의 정계복귀 가능성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건 그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P68. 김대중과 김대중이미지)에서 보듯이 김대중의 부활문제를 단지 정치 코메디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결국 강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과 정치가 몇십년에 걸쳐 지목하게 '김대중 죽이기'에 앞장서 왔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래도 아직 김대중은 죽지 않았다 라는 것이 솔직한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아직도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김대중 살인자들은 김대중 죽이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것이다. 결코 김대중은 망령으로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앞에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다.

아직도 나의 의문은 남는다. 한국의 언론은 김대중을 괄이시장시를 헤먹었다라는 말에도 이유없이 동의한다. 게다가 박찬종이 양비론의 선두자로서 모두 잘못했다를 남발해서 인기를 얻었으며, 그 인기가 또한 허망하다는 것도 옳다. 양비론은 지식인의 아편과도 같은 것이다. 그의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발줄앞에 약한 것이 지식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이 그렇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에 이런 비판이 당당하고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강교수는 이 '양비론의 원칙이 한국정치를 망치는 주범인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언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가 누차 언급했듯이 언론학자로서 언론의 불공정성을 한탄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의문이 남는다. 결국 '언론'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사회와 정치를 망치는 주범이 언론이며, 그것에 이의의 여지가 없음이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결국 시장 경쟁체제에서의 언론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강교수는 언론과 지식인이 국민에게 따끔하게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한다는 것이다. 강교수는 지식인이 타락하는 것도 '언론' 때문이며, 정치인이 타락하는 것도 언론의 문제이며 국민이 무지한 것조차 모두 '언론'이 책임이라는 논조에 가깝다. 진보적 지식인 조차도 언론에 아무렇게나 떠들어대거나, 언론의 농간에 놀아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술자리에서나 해야할 말이 따로 있다는 말인데 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강교수는 지식인이 타락하는 것도 '언론' 때문이며, 정치인이 타락하는 것도 언론의 문제이며 국민이 무지한 것조차 모두 '언론'이 책임이라는 논조에 가깝다. 진보적 지식인 조차도 언론에 아무렇게나 떠들어대거나, 언론의 농간에 놀아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술자리에서나 해야할 말이 따로 있다는 말인데 이고 그의 도덕성에 크게 문제가 없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 모든것이 언론의 잘못이라고 보는 시각도 역시 일관성의 결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양비론과 정치적 무관심이 나라 망쳐
정치인 '언론'과 '술자리' 구별해야

지금까지의 논의는 먼저 '김대중 죽이기'가 단순한 김대중 죽이기에 관한 문제에 귀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싶다. 이는 강교수의 지적에 거의 공감하면서도 어쩐지 그가 바라보는 한국사회가 그 부패와 병폐의 근본원인이, 역대 독재와 군사정권이 이룩하여 온 구조적 병폐에 중심을 두지 않고 몇몇 교수학자층과 언론만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고 말 것같은 기우에서 시작하였음을 얘기하고 싶다.

솔직히 그의 탈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래로 김대중이 죽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때 그랬어야 한다는 것은 강교수의 생각일뿐이 아닐까. 아직도 김대중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반증이며 이는 지역감정이라는 우리시대의 최고의 불씨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데 믿음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더불어 강교수의 책 역시 대안없는 '김대중과 언론'에 갇혀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도달한다. 언론이 그렇게 문제라면 대안은 무엇인가 '조선일보'를 없애야 하는가 대한민국 언론을 모두 없애야 하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언론을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도달한다. 강교수의 다음 작품은 어떻게이 몹쓸 언론과 사회의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가 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게 어리석은 후학의 기대가 된다면 나무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박 웅 〈논설위원〉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

5. 아르바이트 성실로 쌓은 경험탑

"강의교재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 값보다 비싸고, 지녀땐 한 잔 하고픈데 돈은없고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돈은 왜 이리많이 드는지…"

대학생이 된 신입생들이 이맘때쯤 중얼거리는 말일 것이다.

대학에서 지식을 쌓고 낭만을 누리는 만큼, 그런 가치활동을 하기위한 금전이 필요하다. 이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르바이트다.

아르바이트는 교내 아르바이트와 교외 아르바이트가 있다.

교내 아르바이트는 안권복지위원회가 3월초와 9월초에 모집한다.

교내 아르바이트의 장점을 든다면, 이동시간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교내 아르바이트에는 밤10시부터 새벽2시까지 학우들의 안전을 위한 '귀찰대'가 있다.

또한, 정문과 후문에서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통제 아르바이트가 있으며, 출입증이 없는 차량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주차관리 아르바이트가 있다. 그밖에 매점판매원, 홍보물 제거 아르바이트가 있다.

귀찰대 이외의 아르바이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귀찰대 보수는 월 15만원, 시간당 3천7백50원이고, 귀찰대이외의 아르바이트는 월 10만원, 시간당 2천5백원이다.

교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면 인복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교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면, 학생회관에 위치한 취업정보실과 도서관 2층의 컴퓨터의 화일을 통해 검색하면 된다.

교외 아르바이트는 대인접촉이 많은 편이어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자기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교외 아르바이트의 종류로는 과외, 통역설문지, 백화점 판매, PC입력, 교정·교열, 상품홍보 아르바이트가 있다.

이동 시간 절약 되는 교내일—인복위
폭넓은 인생의 장 교외일—취업정보실

취업정보실 이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성실히 하는 근면함도 필요하다. 성실히 일하는 자세를 가질 때, 유형의 자산, 돈보다 더 소중한 무형의 자산, 사회적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복영 기자)

효성은 항상 노력하는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
노력하는 젊음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꿈과 낭만이 살아있는 대학생활—
우리 삶을 통틀어 가장 자유롭고
정열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또렷또렷한 눈빛으로
새로운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고
선명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젊은이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효성은 항상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효성그룹

● 효성물산 ● 동양나이론 ● 동양폴리에스터 ● 동양캠콜 ● 효성중공업
● 효성에버리 ● 효성하이스트 ●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효성에이텍시스템 ● 한국타이어
● 한국전지 ● 대전피혁 ● 동성 ● 대성 ● 효성금속 ● 효성기계